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87호 【루계 제25796호】 주체106(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 혁 명 활 동 소 식 을

####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NHK방송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지난해 9월 농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연구소를 새로 건설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농장에서 재배되고있는 벼, 강냉이 등을 보시고 수확량이 높은 농작물들을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할수 있은 비결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걸사관철하려는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평가하시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헌지지도소식들》파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올렸다.

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신문,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로므니아사회주의당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5일에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의 인사들과 당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출판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주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전행정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위업완성과 조선의 자주통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보고의 구절구절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함으로써 조선을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안아오려는 그이의 철의 의지가 백박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4일부가 게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을 이딸리아 밀라노주체사상연구원이 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평 양

###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 김 정 은 각 하 께

오늘 2017년 10월 7일 이딸리아의 로마에서는 《헌 세계에서 자주성과 평화》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온 토론회참가자들은 각하께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어 주체사상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시기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 사회주의를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우리의 귀중한 지침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립각하여 깊이있게 토의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었으며 당신께서 더욱 심화시켜나가시는 이 사상은 식민지 강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many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파괴된 후에도 진보적인 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이 자본주의의 부당성을 극복하고 제국주의 략압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의 제1선에서 용감하게 나아가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들과 무당한 제재들이 증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위협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며 자주권을 수호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실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현 세계에서 자주성과 평화》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일동

2017년 10월 7일 로 마

### 《현 세계에서 자주성과 평화》에 관한

##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헌 세계에서 자주성과 정화》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7일 이딸리아 로마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길을 따라 드팀없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영국, 도이췰란드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 이딸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1세기의 해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자주로 번영할것이라고 찬양하였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영국, 도이췰란드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 이딸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1세기의 해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자주로 번영할것이라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는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조선이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이며 이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 유럽지역 나라들이 나아갈 길은 반제자주의 길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것은 자주적이고 정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모두의 영예로운 의무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자주력량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체사상과 결부하여 토의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해결방도를 모색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토론회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토대하여 매개 나라와 지역의 자주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

### 년간 광물생산계획 3배로 넘쳐 수행

####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에서 10월 5일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여 시대를 빛내는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순간도 멈춤없이 더욱 분발하여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카라고 떠밀어주고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또다시 3년분고지를 점령하는 신기록을 세운 고경찬영웅소대의 위훈은 수령의 뜻을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로 받들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정신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장거로 된다.

정녕한 광부들이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일당겨 완수한 투쟁성과를 그토록 값높이 평가하시어 축하전문도 보내주시고 2년분계획을 완수하였을 때에는 친히 전화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우리 당이 쥐어준 만리마고삐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질풍같이 내달리며 련일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갔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고경찬영웅소대에서 창조되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제때에 소개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온 나라에 소문난 영웅광부소대가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3년분계획수행기간 생산조건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웠지만 소대에서는 과학기술을 들이쉬고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갔다.

고경찬소대장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증산의 지름길을 힘있게 열어나갔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채굴대차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채굴량을 훨씬 높이면서 종진기록을 련속 갱신해나갔다. 발파용자재보장이 점점 어려워질 때에는 기발한 착상으로 약장입방법을 새롭게 하여 m당 폭약소비를 종전보다 20%나 줄이면서도 한발파에 2만 5천t의 광석을 통째로 떼꾸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소대의 전진을 승리의 지름길로 이끌어가는 고경찬소대장의 역할은 소대원들의 생산력을 화산처럼 폭발시켰다. 누구나 새 기술창안으로 소대의 증산투쟁에 한몸하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김용식선동원은 암석이 굳고 위험한 채굴장을 스스로 맡아 신임광부들에게 암질에 따르는 여러가지 천공방법을 배워주면서 그들이 새로운 천공방법을 창안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사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전차로선개진으로 광석출광을 못하게 되자 교대를 책임진 그는 신입광부들과 함께 지혜를 합치고 집중천공방법에 의한 새로운 채광법을 창안하고 대담하게 도입하여 소대의 마지막전투의 승리적결속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로위천장 리진철동무도 준비굴진이 따라서지 못해 채광작업이 어려워지자 광부들과 함께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탐구하여 채준과 채광작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기술을 혁신하고 정황에 맞게 새로운 작업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한 결과 소대에서는 년간계획을 3배로 넘쳐 수행하면서도 폭약은 3.2t, 정밀은 100알이나 절약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고경찬영웅소대에서 창조한 또 하나의 빛나는 전과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기세충천한 백열전을 벌리고있는 검덕의 광부작업반들과 전국의 모든 작업반들의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더해주고있다.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며 1년도 안되는 기간에 3년분계획을 완수하여 위대한 만리마시대에 특기할 새로운 영웅신화를 또다시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의 혁혁한 위훈은 조국청사에 뚜렷이 새겨져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 철 옥
사진 본사기자 리 동 규

## 강 냉 이 가 을 걷 이 전 투 결 속

### 황 해 북 도 에 서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무분별한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심장을 끓이며 강냉이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가을걷이전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인구를 다 진멸시키겠다고 지껄어댄 늙다리 트럼프놈에게 철추를 내리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신하게 벌리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들에서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강하게 내밀었다.

사리원시, 송림시, 송호군이 강냉이가을걷이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사리원시당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와 관련한 모어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시안의 선동원, 선전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활신하게 벌리였다.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는 시안의 가을걷이전투장 그 어디서나 우리 국가를 완전히 피멸시키려고 지랄발광하는 미제침략자들이 다시는 짓어대지 못하게 물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지였다. 신창, 정방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로 가슴을 끓이며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강냉이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림시일군들은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알곡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은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여 그날 그날 가을한 강냉이는 그날로 실어들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되지 않게 하였다.

송호군의 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올해농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주면서 대중을 가을걷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장폐두목 트럼프와 그 졸개들을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아야 한다고 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상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떨쳐나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하였다.

중화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해낸 기세로 탈곡기와 뜨락또르들의 맘카동을 보장하면서 낟알털기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장풍군, 봉산군, 금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늙다리 미치광이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일념으로 가슴을 끓이며 가을걷이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도에서는 강냉이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해낸데 맞게 낟알털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낟알을 털어내고 있다.

특파기자 신 경 섭

## 법동-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 마감단계

### 강 원 도 에 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원도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법동-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입니다.》**

정양-원산관광도로의 법동굴앞 분기점에서부터 법동군 음을 거쳐 로탄온천지구까지의 도로건설이 완공되면 법동군의 면모가 일신될뿐이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탄온천지구로 가는 도로공사와 살림집이설, 도로주변과 온천지구의 주변산들에 나무를 심는 문제를 비롯하여 온천지구개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강원도 인민들이 맡아 올해까지 공사를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안겨주시었다.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도로로반과 암기공사, 웅벽쌓기를 비롯한 많은 공사과제를 해제낌으로써 올해안으로 결속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온천지구개발에서 중요한 공사대상의 하나인 도로건설을 올해중으로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를 조직하고 자주 공사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공사지휘부일군들은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도로건설을 박력있게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침입식정치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려 모든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적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리며 계속혁신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도로를 곧추 펴고 폭을 넓히며 수십km의 구간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는 어렵고 힘든 도로공사과제를 맡은 법동군과 판교군, 도도로건설련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130여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도로로반공사를 기한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암거공사, 수통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가치있는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과제를 짧은 기일에 질적으로 끝내는데 기여하였다.

나무심기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애국의 마음안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다리건설과 웅벽쌓기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을 힘차게 벌리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건설건재공업성, 화학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도로건설에서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건진하고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의 불굴의 애국적헌신성에 의하여 법동-로탄온천지구도로건설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려친 인민의 환호성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조국인민들에게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72돐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모란봉기슭을 찾았다.

주체조선의 불다발우에 력력히 빛나는 우리 수령님의 업적을 전해주는 개선문이 시대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있는 모란봉기슭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있었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기념벽화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남녀로소들, 개선의 단상에 높이 서시어 인민들에게 뜨겁게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 화폭을 숭엄히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고 천지를 진감하던 환영의 열과가 가슴에 와닿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창건을 선포하신 후에야 인민들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10월 13일, 평양의 하늘가에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한대의 비행기가 날고있었다. 길가던 사람들, 모여섰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쏟아져내리는 삐라들을 보며 의아해하였다. 이윽고 삐라를 쥐고 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어리였다.

운동장밖의 나무숲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었으며 모란봉의 울밑대와 최승대쪽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어있었다. 평양시내와 시주변은 물론 멀리 신의주, 함흥, 청진, 해주 지어는 38°선을 넘어 남조선각지에서까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오후 1시, 은 겨레가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군중은 목이 메여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하지만 그 감격의 시각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고향방문마저 뒤로 미루시고 개선의 첫인사로 인민앞에 먼저 나서시였음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그칠줄 모르는 환호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연설을 시작할수 없으시였다.

후날 이때를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였다고 대답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해 싸웠다는 행복감, 인민이 나를 사랑하고 신임한다는것을 느끼는데서 오는 행복감, 그 인민의 품에 안긴 행복감이였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만면에 해빛같은 웃음을 담으시고 군중에게 손을 들어 흔들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드디어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 하신 연설의 기본내용은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전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는 단절의 기치밑에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자는 불같은 애국의 호소였고 자주적인 새 민주조선의 출발을 선포한 장엄한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성에 넘치시는 음성으로 《조선독립 만세!》, 《조선인민의 통일단결 만세!》를 높이 부르시며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은 또다시 폭풍같은 환호성으로 끓어번지였다.

당시 《정양민보》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정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름름한 웅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군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과 같은것이어서 산야가 떠나갈듯 한 환호성가운데 〈이 사람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으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이 고조되였다.》

력두의 천출위인을 우러러 려친 인민의 환호성!

정녕 그것은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주신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려친 크나큰 환희의 분출이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따라 삼천리조국강산에 부강한 새 조선을 일떠세우고야말 이 나라 인민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할데 대한 우리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혁명의 년대와 년대마다에 더욱 빛을 뿌리였다.

해방후 제반 민주개혁이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시되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는 군사정치적이 창조될수 있은것도, 전후 우리 인민이 재더미우에서 천리마대고조의 불바람으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앞에 부끄럼이 없게 살도록 온 겨레를 품은 품에 안아 믿어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을것이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자랑찬 력사를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그렇다.

72년전 그날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려친 인민의 환호성이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환호성으로 이어지고있기에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은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 성 남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 력사의 그날이 전하는 이야기

## 조 용 히

조국인민들앞에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오후 그리운 고향 만경대로 향하시였다.

순화강나루터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은 나무배를 타시였다. 못 잊을 추억이 깃들어있는 순화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감회는 참으로 크시였다.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고향마을로 들어설 때 나를 맞아주던 다듬이방치소리와 만경봉의 다박솔향기를 지금도 잊을수 없다고, 갈매지붕뚜에서 소가 길게 영각을 울릴 때면 오래간만에 맛보게 되는 고향의 향취에 그만 목이 찍 메이는것 같았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누구에게나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애틋하다지만 만경대를 떠나신 때로부터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기에 향촌의 고유한 정서가 더욱 소중히, 더욱 유별하게 안겨드신것이였다.

세상에는 명인들의 귀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조국해방과 당창건의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개선의 그날처럼 조용히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 오 신 길

고향집에 들어서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눈에 익은 고향집추녀를 바라보시는 순간 어린시절 자장가를 불러주고 일깃으로 언 손을 녹여주시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달려나와 두팔을 크게 벌리고 부둥켜안는것만 같으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버선발로 마당에 달려나오신 할아버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을 얼싸안으며 우리 장손이 돌아오는구나, …어디 보자! 어디…하고 눈물속에 뇌이시였고 할머님도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좋은다며냐라고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할아버님, 할머님에게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시였다. 그러자 할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네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조선독립을 네가 해냈으면 그게 효도지 그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게 효도니라.》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것이 효도이다.

진정 그것은 만경대가분의 가풍이였고 만경대일가분들의 좌우명이였다.

## 수 수 한 멍 석 우 에 서

력사의 그날 밤이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른 집 사랑방에 잠자리를 정해놓았으니 오늘 밤은 거기에 가서 자야겠다고 하시였다.

그때 만경대고향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수리를 시작하였는데 미처 끝나지 않았던것이다. 문도 제 닫지 못하였고 아직 마르지 않은 구들에는 밀짚파벽질을 깔고 그우에 멍석을 펴놓은 상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아버님에게 우리는 산에서 호강을 하다가 온 제 아닙니다, 풍찬로숙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늘을 지붕삼고 초목을 이불삼아 덮고 살았습니다, 풀은 제 집에 와서야 제 구차스럽게 남의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자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들으신 할아버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렇다면 그 집 사랑방은 물리겠다고, 하기야 스무해만에 찾아온 고향집인데 남의 집 사랑방신세를 진다는것도 멋적긴 멋적다고 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스무해만에 찾으신 고향집의 수수한 멍석우에 자리를 펴시고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도 더듬어보시고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모습도 그려보시였으며 새 조국의 미래도 설계하시였다.

본사기자

# 만 경 대 에 서 의 환 영 모 임

70여년전 만경대에서는 20년만에 고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당시 《정양민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경대방문과 관련하여 이런 기사를 실었다.

《…

장군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은 남녀로소 통털어서 동구앞까지 마중나왔다. …

오늘부터 만경대는 조선의 만경대아니 세계의 만경대라는 영예를 지니게 되는것이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주체34(1945)년 10월 15일 날이 밝자부터 고향집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오려고 사람들이 길이 메이게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고향집 뒤마루에 멍석이 퍼졌다. 우리 수령님께서 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말고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하시여 마을청년들은 키높은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을 쉬락쩌락하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모시고 진행하는 모임장소치고는 너무도 검소하였다.

오전 9시경 많은 사람들로 고향집안팎이 꽉 들어찬 가운데 환영모임이 시작되였다. 우리 수령님을 환영하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향사람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나서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여러분!

그동안 일제의 학정하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해방된 고향땅 만경대에서 20년만에 그립고 보고싶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감격과 기쁨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정당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며 일제와 치렬한 전투를 할 때에도, 힘겨운 행군을 할 때에도 언제나 자기가 나서자만 고향과 조국을 생각하였으며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지어 내렸다.

폭풍같은 박수가 터져오르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해방된 이 땅우에 파키에 못살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부강한 새 조선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천명하시고 이렇게 연설을 마감하시였다.

나는 여러분이 민주주의기발아래 일치단결하여 만경대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며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만경봉에 메아리쳤다.

소박하고 격식없이 진행된 모임이였으나 만경대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에서 새 조선의 밝은 앞날을 환히 내다보게 되였다.

본사기자 채 히 성

###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 미 래 의 참 다 운 주 인 공 이 되 라

## 리 오 송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나는 사양할 말문을 잃고 그이께서 떠주시는 물죽을 받아들고야말았다.

나는 뜨거운 그 무엇이 가슴에 울컥 치밀어 죽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동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린시절의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함께 씨메질을 하고있노라면 어머니가 점심밥을 함지에 담아이고 나오시군 하였다. 없는 반찬에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때면 곁에 앉아 애정어린 눈매로 지켜보군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것을 지켜보고계시는 사령관동지에게서 나는 그전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식사가 끝나자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어깨를 일일이 만져보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동무들, 오늘 배낭이 퍽 무거웠지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드리자 **《왜 무겁지 않았겠소. 식량이 들어있지 않으니 배낭은 퍽 가벼웠을지 모르나 실상은 종전보다 몇배 더 무거웠을것이요. 동무들, 그렇지 않소?》** 이렇게 다시 물으시며 우리를 둘러보시였다.

우리들의 심정을 그처럼 깊이 알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우리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였다.

**어떻소, 향군이 교되여 힘겨울때, 이처럼 매일같이 물죽으로 끼니를 에울 때마다 집생각이 나지들 않소.**

이렇게 물으시기에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령관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자라며 마음껏 배우고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어린이들의 명랑한 얼굴과 그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나 할것없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국땅에서 학대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어린시절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한창 재롱을 부려야 할 나이때부터 나는 입을것을 못입은채 굶주린 창자를 졸라매고 나무를 해야 했으며 지주놈의 소를 먹여야 했다.

이러한 내가 어찌 학교에 갈 생각을 품어볼 할수 있었으랴. 설상가상으로 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

모진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병에 걸린 어머니는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어린 나와 너동생을 남겨놓고 원한에 찬 눈을 감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그후에 아버지마저 굶어 몰아가시고 고아로 된 나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들어가 사령관동지의 따뜻한 손길아래 자라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벅찬 현실을 볼 때 다시금 지난날의 잊을수 없는 가지가지의 일들을 회상하게 된다.

나와 같이 어려서 부모를 원쑤놈들에게 잃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간 많은 소년, 소녀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해빛처럼 따사로운 사령관동지의 사랑속에서 혁명의 전사로 자라났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나어린 동무들에게 **동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장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견전한 사상으로 무장하며 신심을 단련하여야 합니다**라고 항상 가르치신 말씀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때일과 같이 적과 치렬한 싸움을 하는 전투원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돌보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대원들에게 돌려주신 사령관동지의 끝임없는 지도와 사랑은 지극히 깊다.

부모없는 고아들인 우리들에게 옷과 신발, 연필과 학습장을 마련하여 주시였으며 참된 혁명전사가 되라고 몸소 글을 가르쳐주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은혜를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그런데라.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어린 대원들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뚫고나아갈수 있는 불굴의 투사로, 동지들을 위할줄 아는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로 키워주시였다.

1940년 여름 무대가 사령관동지의 친솔밑에 안도현의 어느 밀림속을 행군하던 때에 있은 일이다.

진드기처럼 탈라붙어 떨어질줄 모르는 적들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격퇴하면서 행군을 계속하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던 식량마저 떨어지고말았다.

풀죽으로 끼니를 에워가며 계속하는 행군은 나어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기 어려운 고된 일이였다.

등에 짊어진 배낭은 점점 어깨를 과고들며 흥을 다룰수 없을만큼 무거워졌다.

온종일 걸음을 다그치다가 잠시 휴식을 하게 되면 몸이 솜처럼 노그라져 천길 땅속에라도 찾아드는감을 느꼈다.

그러나 사령부의 전령병인 우리들에게는 자신이 힘든것보다도 사령관동지께 번번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팠다.

비상용으로 남겨두었던 얼마간의 밀가루마저 떨어지게 된 어느날 우리들은 휴식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나물을 뜯었다. 이렇게 뜯은것을 저녁에 모아보니 두어배낭은 실히 되였다.

우리 전령병들은 모여앉아 이 나물을 퍼놓고 연하고 매끗한것을 골라내였다.

무떡, 세번 고르고 또 골랐다.

그런 다음 배낭을 털어모은 두어줌 되는 밀가루와 함께 밥통에 넣고 죽을 쑤었다. 우리는 그것을 전막안에게시는 사령관동지께 가져다드린 다음 다시 우리가 먹을 나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비록 그것이 풀죽이기는 하지만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의 성의가 깃든 죽을 드시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들이 식사를 하려고 우등불가에 둘러앉은것은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깃든 때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들이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밥통을 한손에 드시고 천막에서 나오시여 우리의 곁에 와앉으시면서 《식사란 여럿이 함께 해야 맛이 더 나는 법이요.》라고 하시며 밥통을 앞에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풀죽을 손수 한술 떠잡수시고나서 **《동무들의것이 참 맛이 있구만.》**라고 하시면서 밥통에 들었던 풀죽을 우리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하시였다.

우리는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모두들 자리에서 한걸음씩 뒤로 물러앉으며 그이께서 떠주시는 풀죽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곁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그러지들 말고 자, 어서 오송이부터 밥소.》라고 하시였다.

나는 어떻게 할바를 몰랐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랴.

오송동무의 말이 옳소. 곤난에 빠졌을 때 집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약하게 가지는 사람은 참된 대원이 아니요.

참된 대원이 되자면, 진정한 혁명투사가 되자면 어떠한 곤난이라도 극복할줄 알아야 하오. 그래야 우리 조국을 광복하고 미래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소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떤 곤난이라도 참아가며 원쑤들과 싸워이겨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수 있으며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잘 살수 있는 광명한 행복의 날이 온다고 차근차근 말씀하여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막혔던 앞이 환히 트이는것을 느꼈다. 피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용기가 샘처럼 온몸에 용솟음쳤다.

**《자, 동무들, 용기를 내여 노래를 불러보오. 누가 먼저 부르겠소?》**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우리는 앞을 다투어 모두 벌떡 일어섰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

우리들은 앞뒤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운차게 노래를 불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들으신 후에도 곤난한 때일수록 서로 돕고 받들어주어야 하며 잠시도 떼이해서는 안된다고 일러주시고 친막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날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도 누나와 동생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령관동지의 육친적사랑이 있고 그이의 따뜻한 품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고 도와주는 혁명선배들, 친근한 동무들과 함께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사령관동지의 고귀한 은정에, 혁명동지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그들처럼 강의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나는 몇번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후 나는 이 뜻깊은 날 저녁에 있은 일과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었다. 때아닐수 없이 큰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언제나 그날밤 그이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용감히 뚫고나아갔다.

어린 전사들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 그것은 한없이 깊고도 넓었다.

그러기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엄하게 타일러 고쳐주시였다.

1937년 부대가 장백현 7도구근방에서 활동하던 때라고 생각된다.

그때 소년중대에는 리두익, 조명선동무들을 비롯한 30여명의 나어린 전사들이 있었다.

부대가 밀림속에서 숙영하고있던 어느날 밤늦도록 책을 읽고계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소년중대가 숙영하고있는데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소년중대동무들은 깊이 잠들고있었다. 벗어던진 모포를 기두어서 덮어주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이들이 모두 신발을 벗어놓고 자는데 주의를 돌리시였다.

이윽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곰 소년중대의 지휘성원들을 부르시였다.

**《어째서 이 애들의 신발을 벗겨 재웠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엄격하고도 걱정어린 어조로 이렇게 물으시였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만에야 작식책임자인 녀동무가 《신발을 신은채 자는것이 너무 애처로와서… 제가 그만 …》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날의 행군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한번도 신발을 벗고 시원하게 쉬여보지 못하는것은 누구나 할것없이 느끼는 고충의 하나였다.

후에 듣고 안 일이지만 이날밤 소년중대동무들이 한번 신발을 벗고 자겠다고 뭇전디게 졸라대여 작식책임자동무가 할수없이 허락하였다고 한다.

한참이나 묵묵히 생각에 잠기셨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윽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소년들이 어떤 애들인줄 아는가.

**물론 신발을 벗겨 재우면 좋은줄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우리는 장차 조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갈 일군들을 키우고있소. 우리는 이 애들이 어떤 곤난과 난관도 두려움없이 뚫고나아갈수 있는 백절불굴의 혁명가로 자라도록 키워야 하오.**

그러기에 오늘은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강하게 요구도 하고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때로는 처벌까지도 적용해야 하는것이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것은 그저 그들이 하자는 대로 시켜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혁명가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도록 가르치며 이끌어주는데 있소.

사령관동지의 간곡한 말씀에 작식책임자는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어린 전사들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깊고도 넓은 사랑, 지극한 배려밑에 우리는 자라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늘 생각한다. 무엇으로 이 바다보다도 깊은 은혜에 보답할것인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충실하여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아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짐뿐이다.

#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불타는 신념과 맹세

## 수령보위, 혁명보위의 제일근위병이 되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신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격정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의리도, 후대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푸갈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태양같이 뜨겁고 넓은 그 품에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것이다. 그 중에서도 혁명학원졸업생들의 감격과 흥분은 남다르다.

혁명학원시절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들던 잊지 못할 추억이 이들 누구나의 가슴에 간직되여있다.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목청껏 부르던 《세상에 무럽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울리고 있다.

말아안은 사랑과 행복이 끝수록 다지는 명세도 뜨겁다.

수령보위, 혁명보위의 제일근위병이 되자, 이것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0돐을 뜻깊게 기념한 혁명가유자녀들의 가슴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신념과 맹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혁명가유자녀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입니다.》

우리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을 만난것은 대동강반에 어름이 깃들던 지난무렵이였다.

마침 행사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신 소식에 접한 격정들을 터놓고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 친위중대원이였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리길송동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친위중대원들의 가슴속에 만경대혈통, 백두산혈통의 신념과 넋을 심어주신분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옛 친위중대원의 이야기는 혁명가유자녀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친아들이 입을 학원제복도안을 몸소 만드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서 품들여 만드신 학원제복도안을 보아주시며 지고리 소매단에 흰 붉은 줄은 내용이 깊어서 좋고 바지에 붉은 줄을 친것은 항일의 혁명전통 하나만을 굳건히 이어나간다는 뜻이 뚜렷하므로 제일 좋아보인다고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라고 자처하던 종파분자들이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학원복을 입혀놓고 히히닥거릴 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며 당장 벗기라, 이 붉은 줄에 어떤 피가 스몄는지 알기나 하는가, 이 붉은 줄 학원복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에게 입혀주신 빨찌산군복이다, 장군님의 아들딸만이 입을수 있는 만경대의 제복이다라고 추상같이 꾸짖으시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선혁명의 피줄기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게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슬하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옹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마땅한 본분과 의리로 간직한 만경대혁명학원 친아들로 조직된 친위중대였기에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친위중대원들은 최고사령부 뜨락에 비가 내릴 때면 교대없는 보초병이 되시여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가시던 김정숙어머님의 고결한 넋을 이어 수령님의 집무실창마끌에서 쏟아지는 비줄기를 몸으로 막아 수령님의 사색을 지켜드리였고 수령님께서 리용하실 교통호에 흙 한삽을 얹어도 무송천성과 대사하치기에 메아리치던 멀적의 총성을 생각하며 철의 용맥으로 다져나갔다.

갑자기 탈며든 적기와 맞다든 위급한 순간에는 친위중대원 모두가 수령님을 세겹, 네겹으로 에워싸고 육탄성벽을 이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품, 어머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친위중대원들이 발휘한 승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모든 혁명가유자녀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

리길송동지의 이야기를 감동깊이 듣고있던 조선인민군 군관 장철우동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하였던 수령결사옹위의 투쟁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제일근위병, 참된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만의 맹세가 아니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깊은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가 자라났던가.

선군시대와 더불어 태어난 수많은 옥탄영웅, 자폭용사의 자식들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한 부모들의 넋을 이어 우리 당의 참된 전사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서 총실성의 진통,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유자녀들이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 굳건히 서있다.

진정 당의 품속에서 만경대의 불과 붕기를 마시며 자란 만경대의 아들딸들이 수령보위, 혁명보위의 제일선에 굳건히 서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변함없을 혁명가유자녀들의 신념이고 맹세이다.

어버이수령님 따라 주체혁명의 길을 헤쳐온 세대들처럼,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온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따라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한길에서 수령보위, 혁명보위의 제일근위병으로 삶을 빛내이는것, 이것이야말로 혁명가유자녀들의 최고의 영예, 최대의 영광과 행복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 = 우리는 혁명학원졸업생들이다 =

### 인생의 시작도 끝도 오직 그 품에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에 접하고 나는 온밤 잠들지 못했다. 해방후 조국의 품에 안긴 우리 유자녀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뵈온 심정이였다.

토스메옷도 번번히 입지 못한 나와 유자녀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이제는 먼저 떠나간 동지들에게 면목이 서게 되였다고, 원아들에게 빨리 옷도 해입히고 이 애들의 친부모가 되여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자고 거듭 이르시던 그이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우리 유자녀들이 자랐다. 진정 우리의 참된 인생의 시작도 끝도 어머니당의 품에 있다는것이 내가 한생을 통하여 더욱 굳게 새긴 진리이다.

나는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만경대의 아들답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직하며 자식들도 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하겠다.

국가선물관 관장
김 시 학

### 대를 이어 참된 생의 자욱을

지금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예술영화《생의 흔적》에서 비료를 접수하러 간 어머니를 일으켜세우며《우리 엄마 왜 밀차!》하는 장면이 혹시 희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때없이 받군 한다. 그러나 영화에 반영된 세부들은 나와 우리 가정에 있었던 사실들에 기초한것이다.

철없던 시절 방학이 되여 집에 가면 일이 바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추석날 아버지산소에도 가지 못하는 어머니를 오해하고 야속하게 생각한적도 있었다.

나는 당의 품속에서 만경대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생의 흔적을 값높이 이어가려고 꿋꿋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과 대를 이어 혁명의 군복을 입고 삶을 빛내이도록 해준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속깊이 새기게 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
라 래 화

###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나에게는 한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있다.

주체58(1969)년 11월 나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원아들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몇살인가, 동생들은 몇인가고 물어주시면서 공부를 잘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혁명가가 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당부는 나에게 혁명가유자녀들이 설자리가 어딘가 하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기쁠때나 어려울 때나 만경대혁명학원시절을 심장속깊이 간직하고 일해온 나에게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나는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당의 믿음을 영원히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떼 앞장에서 받드는 제일총신으로 삶을 빛내여나가겠다.

평양시당위원회 부부장
강 분 석

# 충정과 보답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원졸업생들이 말고있는 초소는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당이 믿고 맡겨준 중요한 혁명초소이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전략초소들입니다.》

10년, 20년, 40년…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속에는 이렇게 오랜 세월 충정과 보답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온 애국자들이 많았다.

천군어머니, 당일군어머니, 한부들의 친누이…

《우리야 혁명학원졸업생들이 아닙니까. 수령님들의 넓은 품을 물어드리고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려는것이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리광숙 황남공업대학 초급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혁명학원졸업생들의 삶,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보석처럼 빛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더 들어보았다.

이름은 리증남, 올해 69살인 그는 해주시일반용품수매상점 수매원이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에 강반석혁명학원을 졸업한 그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일하면서 새 가정도 이루었다. 5년후 그는 제대된 남편을 따라 해주시에 살림을 폈다.

해주시에 온 후 그는 며칠동안 무슨 일을 할것인가를 생각했다. 혁명학원졸업생이고 제대군인이며 당일군경력도 있는 자기는 꼭 어렵고 힘든 초소에 서야 한다는것이 그의 결심이였다.

그러면 어느날 리증남녀성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매부분 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내용을 전해들게 되였다.

수매원들이 역할을 높여 지방산업공장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시며 수매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그날 밤 그는 잠들수 없었다.

(내가 수매원이 될수는 없을가.)

해본적도 없고 그 부문에 대한 파악도 없었다. 하지만 단한가지 그의 심장을 울린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혁명학원졸업생인 자기가 제일 앞장에서 풀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생소한 수매원일을 시작했다. 수매원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궂은일을 하느라 옷이 헤해졌고 하루에 수십리길을 걸느라 끼니를 번질 때도 있었다. 울망졸망한 다섯 아들을 키우는 속에서도 주민들속에 들어가 수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해설선전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의 깐진 일솜씨와 이악성은 해마다 수매계획을 지표법으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 나날 그는 수매에 말하는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었고 많은 원호물자들도 마련하여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40년동안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수매원일을 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수매원일이 그렇게도 좋은가고 물을 때면 그는 말하군 한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문득 일터에 찾아오시면 수령님들의 걱정을 끌어드리는데서 언제나 앞장에 서있는 혁명학원졸업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싶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보람이였다고.

혁명학원졸업생의 본분을 지켜 한생을 참답게 사는 애국자는 그뿐이 아니였다.

조국통일상수상자이며 공화국영웅인 아버지의 넋을 이어 말은 일을 잘할뿐아니라 인민군대원호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신계군 읍사무소 사무장 학명옥동무며 수도려객운수부문에서 10여년간 일하면서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새겨온 수도려객운수국 만경대버스사업소 부원 김명애동무,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남먼저 달려나가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삼신탄광 일군인 최삼선동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답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한생을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장을 불태우고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는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충정과 보답으로 빛나는 고귀한 부름을 다시한번 새기였다.

우리는 만경대의 아들딸들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 혁명의 피줄기를 억세게 이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가는 혁명학원졸업생들중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는 영웅전사의 자녀들도 있다.

우리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속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하늘의 불사조 김영조영웅의 자녀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었다.

사랑하는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수령결사옹위의 비행운을 새기며 영생의 삶을 빛내인 김영조영웅, 그의 아들인 김훈동무의 모습을 보니 영웅이 남으면 조국수호의 항로를 오늘은 그가 남긴 후대가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시절을 잊을수 없습니다.》

혁명학원제복을 입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 숭고한 넋원을 심장에 새기면 그 나날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당의 아들딸로 몸과 마음을 자래우려 그 나날에 깊은 동무는 심장으로 집감하였다.

절해고도에서도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영광스러운 당기발을 끌까지 놓지 않는 신념의 강자, 의리의 강자가 되는것이 혁명가유자녀들이 가야 할 유일한 인생길임을.

하기에 그는 아버지가 지키던 초소에 조국보위의 첫 자욱을 새기였고 25살에는 아버지처럼 비행종대장이 되였다.

몇해전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에 참가하여 아버지가 남으면 김정일결사옹위의 항로를 김정은결사옹위의 항로로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김훈동무의 토론을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치하해주시며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김훈동무는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비행훈련모습을 보여드리는 몸같은 영광을 지니였다.

김훈동무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영조영웅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교있소, 대를 이어 남으는 조국수호의 항로요, 잘하오, 정말 잘하오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비행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훈동무를 한품에 안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조국수호의 항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그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김훈동무는 하늘길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한다는 각오를 안고 구름속 천리, 물비속 만리도 주저없이 뚫고나가는 불굴의 붉은 매, 하늘의 결사대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나갈 결의를 다놓았다.

《지도 혁명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소 천어버이가 되시여 강반석혁명학원에 보내도록 해주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속에서 어엿한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성장한 김훈동무의 풍생 김벌동무의 이야기였다.

참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혁명전사들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는 법이다.

어버이수령님을 품안에 잃은 슬픔을 안고 온 나라가 몸부림치던 시기에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사회주의농촌을 활짝 꽃피울 결심을 안고 강계시 석현남새전문협동농장으로 자원진출한 고순희동무, 사회주의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온산군계급교양관 관장 주순녀동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비단심폭포를 마련하는데 모든것을 바칠 결심을 안고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직장장 장혜경동무…

당이 부르는 중요한 전구들에 자기들의 전투정신을 정하고 돌격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이 꿋꿋이 이어지는 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피줄기는 이렇게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 함흥의학대학 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함흥의학대학에서 최근 몇해사이에 학생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는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대학에서 지난 키간 일정한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였다.

그는 일군들의 모임에서 대학의 모든 사업을 유훈관철전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여기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대학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교직원, 학생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을 앞세우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거점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릴 때였다. 당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가해주신 단위들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들을 돌아보면서 좋은 점들을 적어가지고와서 대학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다. 그는 학술체렬은 물론이고 전시판의 글체, 실내조명, 색깔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쏟았다.

당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은 대학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충정심을 남김없이 발동시켰다. 그리하여 혁명사적교양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고한 뜻을 새겨주는 사상교양장소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런 뜨거운 충정의 열의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연혁소개실도 훌륭히 꾸려졌다. 또한 위대성교양자료들을 위주로 한 5대교양직관판을 새로 제작하여 교사복도에 게시함으로써 교직원, 학생들을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교원들의 교수교양사업과 학생들의 학과학습과정이 곧 유훈관철전이라는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청사중앙홀에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새로 정중히 모시고 북도에 대학에 주신 유훈들을 체계화한 직관판을 걸직하게 제시하여 누구나 유훈을 새겨보면서 하루사업을 시작하고 총화도 유훈관철로 일관시키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유훈을 가지고 문답식학습경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뼈에 새긴 교직원, 학생들은 교수교양사업과 학과학습등 모든 사업이 그대로 유훈관철전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분발해나섰다.

당위원회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서 발휘된 소행들을 적극 소개선전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주에 2차씩 진행하는것을 정상화하여 그것을 적극 일반화해나갔다.

온 대학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으로 끓어번지는 속에 교사내외부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지고 기숙사생들의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후방토대를 그런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과정에 교원들은 교육자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실무적자질을 더욱 원만히 갖추게 되였으며 학생들은 사회주의보전제도를 빛내여나갈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하게 되였다.

지금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 은을 내는 보도블로크생산기지

## 청진시도시경영건재공장에서

크지 않은 지방공업공장인 청진시도시경영건재공장에 심피적인 보도블로크생산공정이 꾸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시인의 도시경영사업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이 공장에서는 한해에만도 수십만장의 보도블로크를 생산하여 도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블로크생산의 기본원료가 세멘트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 공장 역시 한해에 천여t의 세멘트를 소비하고있다.

놀라운것은 이 적지 않은 량의 세멘트가 전부 전로광재로 만들어진것이고 제품의 질적수준도 높다는 사실이다.

이런 호기심에 끌려 우리는 이 공장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 오늘 그 어디서나 세멘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보도블로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체공장인 이 단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보도블로크는 오랜 기간 각이한 힘을 받기때문에 그 생산에 리용되는 세멘트에 대한 요구조건도 대단히 높다. 때문에 강도가 낮은 세멘트로는 보도블로크를 생산할수 없다는것이 굳어진 관념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에서 강도가 높은 세멘트를 보장해주기만을 기다리며 팔을 놓고 주저앉아 제자리걸음만 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 시, 군들을 자기의 업굽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걸음길을 기어이 우리 힘으로 일신시키자.

이런 불같은 입넘안고 이들은 긴장한 세멘트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닌 도인민보안국의 인민보안원들도 이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나섰다.

이들이 주목을 돌린것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나오는 폐설물인 전로광재로 만든 세멘트였다. 비록 강도는 높지 못했지만 방도는 이 길밖에 없었다.

수십차에 걸치는 시험과 그에 잇닿은 실패, 그러나 이들은 주저앉을수도, 물러설수도 없었다. 이 길에서 물러서는것은 끝남의 손을 바라고 남의 힘에 의지해야만 하는 길임을 이들은 너무도 잘 알았기때문이였다.

자기 지방의 자재로 질좋은 블로크를 만들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날 이들은 양생공정에 바다물을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을 가지게 되였다. 역시 대중의 지혜는 무한하였다.

이들은 지체없이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강도가 낮은 세멘트로 만든 보도블로크에 박막을 씌워 2~3일간 해빛에서 양생시킨 후 바다물에 며칠동안 잠그었다가 다시 자연양생을 보장하였다.

시험결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놓았다.

수십톤짜리 대형화물자동차가 지나가도 실금 하나없이 견고했던것이다.

자기 힘을 믿을 때 불가능이란 없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다.

공장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10여리에 달하는 바다물수송관부설도 짧은 기간에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들이 꾸려놓은 보도블로크생산공정은 참으로 실리가 컸다.

우선 대야금키지에 무진장한 전로광재에 의거하니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많은 량의 세멘트를 해결할수 있었다.

가짜운 콧

우리는 지방에 흔한 원료로 자기 고장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가는 참된 주인의 자세를 엿볼수 있었다.

주인된 자각은 높은 책임감을 낳는 법이다.

이들은 또다시 공장의 생산능력을 한계단 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목표는 방대하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이들의 앞길에 제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심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극복해낼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다 밝은 래일을 향해 힘찬 보폭을 내짚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심 학 철

#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자

## 과 학 기 술 은 생 산 장 성 의 열 쇠

### 조 양 탄 광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비제와 석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는 오늘날 우리 당에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승벽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하다면 이 투쟁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할 일군들은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자기 단위의 생산을 힘있게 추동해야 하는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조양탄광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난 4월초 탄광에서는 혁봉생을 비롯한 일부 단위들이 공정계획대로 석탄생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원인은 긁개식사슬콘베아에 의한 석탄운반이 정상화되지 못하고있는데 있었다.

당시 석탄생산과정에 사슬이 끊어지면 일부 사슬은 석탄에 묻혀 나가기도 하였다. 그것을 회수하거나 보장단위에서 사슬을 가져다 리용하다보니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산을 진행한다면 언제 가도 석탄생산량을 늘일수 없었다.

사실 탄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체로 긁개식사슬콘베아를 만들어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생산이 드바쁜 관계로 일군들이 여기에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고 탄광실정에 맞게 개조하는데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결정적으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모두가 현실적인 방도를 모색하고있을 때 림동혁지배인이 지난 기간 화력발전소들에 나가 긁개식사슬콘베아의 운영과정을 보면서 생각했던 안을 내놓았다.

그는 탄광에서 리용하는 긁개식사슬의 무측점과 간편하면서도 조립분해가 쉽게 구조적특성을 개조한 새로운 사슬제작방식을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하였다. 이 안은 협의회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으며 그 도입을 위해 기술발전과장 김영기동무를 포함한 설계력량이 무어지게 되였다.

새 긁개식사슬은 형타를 만들어 주물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난點제가 있었다. 그것은 본래의 긁개식사슬콘베아의 성형치차를 합리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 종전에 비해 크게 제작된 사슬의 길음에 맞추기 어려운것이였다.

그렇다고 치차까지 새로 제작하자면 많은 자재와 시간이 랑비되는것은 물론 생산에도 지장을 줄수 있었다.

김영기동무와 공업시험소 김병선, 주물작업반장 최경철, 공정원 한정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조성원들은 탄광의 생산전망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각오안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이런 투쟁의 날과 날이 흐른 속에 이들은 불과 열흘만에 사슬의 구조를 간편하게 하면서도 조립분해가 쉬울뿐아니라 파손률도 줄일수 있는 긁개식사슬콘베아설계를 완성하고야말았다.

결과 탄광에서는 자체로 긁개식사슬콘베아를 생산하게 되였으며 지난 시기보다 석탄생산량도 1.2배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200일전투때 벨트콘베아운연기동장치를 도입하던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탄광에서는 벨트콘베아 원동소의 기계적파손으로 저탄장까지의 석탄운반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다.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과학연구기관파의 긴밀한 련계밑에 벨트콘베아운연기동장치를 제작하여 2호벨트콘베아에 도입한 경험에 토대하여 대담하게 다른 3대의 벨트콘베아에도 이것을 도입할 결심을 하였다.

이 장치로 말하면 당시 설비의 기동 및 정지때 전동기의 전압안정조종과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문제에 의한 전동기보호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한것으로 하여 운전공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자체로 이 장치를 손색없이 제작한다는것은 힘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설비과장 백명익, 운반갱 정장 강병국동무를 비롯한 제작조성원들은 서슴없이 이 길에 뛰어들었다.

거듭되는 실패로 하여 신심을 잃을 때도 있었고 시험과정에 자재가 랑비되여 일군들을 대하기가 면구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탄광책임일군들은 기술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신심을 북돋아주고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음식도 가지고나와 그들이 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결과 탄광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벨트콘베아운연기동장치들을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운반능력을 1.4배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탄광일군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동발회수기와 한소련콤퓨터에 의한 수자식고철연저항측정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설비, 장치들을 제작도입하여 석탄생산성과가 부쩍 확대되게 하였다.

탄광일군들이 이룩한 사업성과를 놓고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나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면서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앞장에서 내달릴 때 생산장성의 돌파구가 열리고 비약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릴수 있다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영민
사진 본사기자 신중혁

## 끊임없이 새 기록창조에로

### 령 대 탄 광 6 갱 의 일 군 들 과 탄 부 들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령대탄광 6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지난 8월 16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력량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뜻깊은 올해 정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이들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무조건 완수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사실 다른 갱들에 비해 운반거리가 멀고 탄층이 좁은것으로 하여 굴진량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지난해보다 근 1.4배나 높아진 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헐치 않았다. 하지만 김광철, 신성재동무를 비롯한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전세대들처럼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맹세안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굴진소대원들은 안전등의 불빛에 드러나는 천연암벽에 착암기를 들이대고 교대없는 전투에 떨쳐나섰고 채탄중대원들은 흐르는 땀을 씻을새없이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생산전투가 벌어지는 막장은 그대로 이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결전장이였다.

당앞에 명세한 날까지 무조건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자.

이 하나의 의지를 안고 굴진공들은 한구멍당 착암시간을 종전의 10분으로부터 8분으로 줄이였고 갱의 위험구간을 육탄정신으로 돌파나가며 일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해나갔다.

고경찬영웅소대원들처럼 생산성과로 당을 받드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날이 갈수록 목표는 더 높이 세워졌고 전투분위기도 달라졌다. 막장마다에 《고경찬영웅소대와 나와》, 《고경찬영웅소대와 우리 중대》라는 글발들과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로 부르는 격동적인 구호들이 나붙고 집단적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일석탄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들앞에 새로운 난관이 막아섰다. 년간계획완수의 결승선이 눈앞에 있던 지난 8월초 로력영웅 리춘금소대장이 일하는 막장에서 물이 터지며 갱이 붕락될 위험이 조성되였던것이다.

이제 20m, 이 구간에서 어렵다고 물러선다면 모든 일이 수포로 되는것은 물론 당결정을 집행할수 없었다.

막장을 신속히 보강하여 년간계획을 기어이 완수하고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지를 안고 리춘규동무가 지체없이 통밥목을 메고 나섰다.

《신렬동무, 빨리…》

그의 뒤침이 울리기 바쁘게 최신렬, 박경호, 김광호동무들이 동발을 안고 물이 터진 개소를 향해 육박했다.

뿜어져나오는 물에 온몸을 적시며 한시간 또 한시간…

소대원들이 현장소식을 듣고 달려온 갱일군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치렬한 전투를 벌린 끝에 막장에서는 착암기소리가 또다시 기운차게 울려퍼졌다. 결과 갱에서는 8월 중순까지 월계획과 함께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올해전투의 하루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는 혁신의 기수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뜻하지 않게 막장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체없이 뛰여들어 귀중한 설비물을 끌어낸 손부철, 리인명동무들과 물과의 치렬한 전투끝에 수백t의 석탄생산실적을 기록한 원명수, 강성일동무를 비롯한 채탄2중대원들…

년간계획완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불퍼한 몸으로 막장을 뜨지 않고 헌신한 손철진, 장명호동무들과 오직 석탄증산을 위해 모든 사색과 실천을 기울인 김광철, 신성재동무를 비롯한 갱초급일군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오늘도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성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할 일념밑에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 생산조건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 덕 천 탄 광 에 서

덕천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이 막장작업에 필요한 적지 않은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리용함으로써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난 7월초 어느날 탄광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석탄생산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뜨거운 현실에 비추어볼 때 탄광의 석탄생산은 응당한 높이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여러가지 원인중의 하나는 키를 진 탄발이 있는 갱들에서 막장이 깊어지면서 통풍보장 등 생산조건이 보다 어려워진데 있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이 문제를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긴장한 생산부터 보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때 초급당위원장은 심중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끊임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는 우리 탄부들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불리한 생산조건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때만이 탄광기술력량이 총동원되여 불리한 생산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투를 전개하며 우선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를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제작설치하기로 하였다.

다음날부터 긴장한 설비제작전투가 시작되였다.

탄광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지난해 련관부문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를 자체로 훌륭히 제작하여 내놓았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갱들의 생산조건을 보다 훌륭하게 개선할 목표를 내세우고 련속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탄광에서는 이밖에도 막장작업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용도의 태관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그 련결방법도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석탄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탄광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신념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 막장의 육탄용사로 청춘을 빛내리

### 개 천 탄 광 길 영 조 청 년 돌 격 대 원 들

개천탄광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9월 22일까지 2년분 굴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4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수행한 기세드높이 2년분 굴진계획수행을 위한 진공한 전투를 벌리던 어느날 돌격대앞에 굳은 암석층이 나타났을 때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가동하던 압축기에 이상이 생겨 착암기까지 멎어섰다. 이때 대장 김성철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우리 함께 양금혁동무의 시를 들읍시다.》

뜻밖의 말에 잠시 어리둥절해졌던 대원들은 돌격대시인 양금혁동무가 자작시를 읊기 시작하자 귀를 강구였다.

우리는 영웅의 그 이름을
지 붉은 기록에 새겨안은
길영조청년돌격대
…
남먼지 튀여들리라
위대한 어머니당이 가리킨다면
지하의 육탄, 오늘의 길영조
되리라

돌격전에로 부르는 시의 구절구절을 대원들은 가슴에 새기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난관에 주저한다면 그 무슨 피끓는 청춘이랴, 당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굴진성과로 보답하리라, 이렇게 속다짐하며 돌격대원들은 함마와 정대를 억세게 틀어쥐였다.

련속적인 공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대장 조승남동무는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천공수를 줄이면서도 발파효률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새로운 발파방법을 내놓았다.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속도가 높아지는 속에 버럭처리가 난문제로 나섰다.

운반거리가 하루에도 거의 4m씩 늘어나고 시간이 감에 따라 많은 버럭이 쌓이는데 비해 탄차보장이 따라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돌격대원들은 탄차가 제때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는 모두 떨쳐나 쌓인 버럭을 옮겨 작업공간을 넓히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였다.

혁신창조의 분초를 이어가는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청년전위된 긍지와 희열이 차고넘쳤다.

날에날마다 높아온 굴진성과를 이룩해가면 돌격대앞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조성되였다.

며칠간 작업중단으로 높이 세운 굴진목표를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면 그때 돌격대원들이 바라본것은 돌격대의 붉은 기발이였다.

《길영조청년돌격대》.

이런 의지를 안고 리춘규동무가 지체없이 통밥목을 메고 나섰다.

《신렬동무, 빨리…》

그의 뒤침이 울리기 바쁘게 최신렬, 박경호, 김광호동무들이 동발을 안고 물이 터진 개소를 향해 육박했다.

뿜어져나오는 물에 온몸을 적시며 한시간 또 한시간…

소대원들이 현장소식을 듣고 달려온 갱일군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치렬한 전투를 벌린 끝에 막장에서는 착암기소리가 또다시 기운차게 울려퍼졌다. 결과 갱에서는 8월 중순까지 월계획과 함께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올해전투의 하루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는 혁신의 기수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뜻하지 않게 막장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체없이 뛰여들어 귀중한 설비물을 끌어낸 손부철, 리인명동무들과 물과의 치렬한 전투끝에 수백t의 석탄생산실적을 기록한 원명수, 강성일동무를 비롯한 채탄2중대원들…

년간계획완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불퍼한 몸으로 막장을 뜨지 않고 헌신한 손철진, 장명호동무들과 오직 석탄증산을 위해 모든 사색과 실천을 기울인 김광철, 신성재동무를 비롯한 갱초급일군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오늘도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성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할 일념밑에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 현지보도 더 많이, 더 빨리

### 천 성 청 년 탄 광 저 탄 장 에 서

탄을 실을 화차들이 서서히 저탄장에 들어선다.

대기하고있던 상차공들이 신속히 화차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상차전투에 진입한다.

신호공 김영실동무의 신호에 따라 삼차가 《부르릉-》 응을 쓰며 무드기 쌓인 석탄을 기세좋게 밀어낸다.

상차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몇분만에 벌써 여러 화차들에 석탄이 가득 실린다. 신호공의 지시에 따라 빈 화차들이 또다시 상차위치에 들어선다.

한편 벨트콘베아에 실려 쉬임없이 저탄장으로 나오는 석탄은 또 하나의 산을 이룬다.

허나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모습은 볼수 없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말한다.

《벨트콘베아수송선을 타고온 석탄이 떨어질 때 바람에 의해 생기는 히실을 막기 위하여 간단한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한줌의 석탄도 허실하지 말자.

그 뜨거운 애국충정이 분출되여서인가 시간이 감에 따라 석탄산이 계속 높아간다.

탄전의 높뛰는 숨결을 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상차공들의 모습은 그대로 전선에 더 많은 탄약을 더 빨리 보내주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던 전시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으로 안겨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한 그날부터 종업원들의 투쟁기세가 더욱 고조되였다는 상차작장 세포위원장 김정철동무의 말을 증명하듯 모든 화차마다에 어느새 석탄이 가득가득 쌓인다.

《뿌-》

또다시 기적소리가 울린다.

상차공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많은 량의 석탄을 실은 렬차가 화력발전소로 떠나간다.

카증스러운 원쑤놈들의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들끓는 대고조전투장으로 힘차게 달려간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 상 을 찾 아

###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락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태양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공화국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진행된다.

15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과 소백수체육단사이의 남자배구 결승경기가, 대동강에서는 육해운성체육단, 비류강체육단, 송도원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모형함선경기가 있게 된다.

한편 이날부터 평양항공구락부에서는 무선조종모형항공기 1급경기가 진행된다.

## 로씨야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안동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로씨야의 싼크뜨-페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되는 국제의회동맹 제137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환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장임순을 단장 13일 비행기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도착하였다.

##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귀국

통치트 룰랄 위원장을 13일 비행기로 귀국하는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단장으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결사관철의 정신이 안아온 결실

### 토 원 수 산 협 동 조 합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단위들속에는 함경북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토원수산협동조합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토원수산협동조합은 몇해전까지만 해도 주저앉았던 단위이다.

하지만 오늘은 물고기잡이와 바다나물생산에서 실적이 높은 단위,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된 단위로 되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를 다시금 새겨본다.

몇해전 이곳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여 전물과 고기배 등을 돌아보던 김종국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그것은 조합이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과 함께 종업원들의 생산열의가 낮아져 이제는 계획을 미달하는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당에서는 오늘날 당정책의 관철은 바로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힘으로 조합을 보란듯이 일떠세워 당에 기쁨을 드리자.

이런 결심을 안고 당조직을 찾아간 그는 수산물생산목표부터 점명하여 종업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줄 생각을 더놓았다.

《나도 배짱있는 일군이 절에 있어 배심이 든든합니다. 우리 함께 본때있게 일해봅시다.》

한해전에 배치되여온 오충걸 초급당위원장이 그의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였다.

김종국동무는 종업원들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조합의 전망이 있다는 결심을 굳히며 방도를 모색하였다.

당의 수산정책을 깊이있게 연구하던 그는 지난 시기 조합에서 리용하던 덤장그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으로부터 생산의 돌파구를 열기로 하였다.

조합에서는 지난 기간 덤장그물을 리용한다고는 하였지만 이머저머한 조건에 빙자하면서 그 관리를 잘하지 않아 해마다 물고기잡이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이제는 종업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김종국동무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일부 사람들은 지난 기간 덤장그물에 의한 물고기잡이실적이 떨어진 원인을 바다에 회유성물고기들이 적어지는데 있다고 하면서 크게 성과가 없을것이라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이 사업을 밀고나갔다.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그 물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고 종업원들과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수동권양기를 리용한 덤장그물수리와 설치에 앞장섰다.

날씨가 불리해지면 전날 작업이 모두 수포로 되여 많은 자재가 랑비될수 있었다. 하기에 이들은 길은 밤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며 고기배우에서 격식없이 벌린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해 종업원들의 정신력은 남김없이 분출되여 그물설치작업은 단 하루만에 결속되였다.

김종국동무는 련이어 물고기잡이철에 들어서면서 작업반과 배별로 생산경기를 조직하였다.

경쟁도로도 크게 내물여 서로의 경쟁심을 불리일으켰다. 여기에 해당한 평가사업도 따라세우니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도 성수가 나서 남편들을 도와나섰다.

이렇게 생산조직을 짜고드니 덤장그물만으로도 년간 물고기잡이계획량의 50%이상을 수행하게 되였고 조합은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도 떨치게 되였다.

조합에서는 종업원들의 생산열의가 높아짐에 맞게 배를 현대화하고 바다가양식을 본때있게 내밀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지난해에 고기배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할 때였다.

당시 마력수가 작은 고기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고기잡이기를 들이대고 교대없는 전투에 떨쳐나섰고 채탄중대원들은 흐르는 땀을 씻을새없이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생산전투가 벌어지는 막장은 그대로 이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결전장이였다.

당앞에 명세한 날까지 무조건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자.

이 하나의 의지를 안고 굴진공들은 한구멍당 착암시간을 종전의 10분으로부터 8분으로 줄이였고 갱의 위험구간을 육탄정신으로 돌파나가며 일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해나갔다.

고경찬영웅소대원들처럼 생산성과로 당을 받드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날이 갈수록 목표는 더 높이 세워졌고 전투분위기도 달라졌다. 막장마다에 《고경찬영웅소대와 나》, 《고경찬영웅소대와 우리 중대》라는 글발들과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로 부르는 격동적인 구호들이 나붙고 집단적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일석탄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들앞에 새로운 난관이 막아섰다. 년간계획완수의 결승선이 눈앞에 있던 지난 8월초 로력영웅 리춘금소대장이 일하는 막장에서 물이 터지며 갱이 붕락될 위험이 조성되였던것이다.

이제 20m, 이 구간에서 어렵다고 물러선다면 모든 일이 수포로 되는것은 물론 당결정을 집행할수 없었다.

막장을 신속히 보강하여 년간계획을 기어이 완수하고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자기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비약하는 선구자집단의 실력가

## 선흥식료공장 지배인 리희숙동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를 떠들어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실력가형의 일군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일군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높이 내세워주신 리희숙 선흥식료공장 지배인,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들을 쾅쾅 생산해냄으로써 빈터나 다름없던 공장을 우리 땅에서 다른 나라 식료품을 밀어내고 우리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의 기치를 든 공장,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일떠세운 그의 헌신적삶은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약동한다!

이 한마디로 공장을 돌아본 느낌을 평하기에는 무엇인가 모자랐다.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의 구호를 정중히 모신 본청사와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된 생산공정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식료품들,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첨단을 돌파해가는 연구사들과 두뇌, 세계의 일감을 안고 뛰는 종업원들, 입고되고 출하되는 제품들로 발디딜 틈도 없는 구내, 《선흥》이라는 상표가 붙은 제품들을 가득 싣고 연방 떠나가는 화물자동차들…

어제도 비약하고 오늘도 비약하며 래일에는 더 높이 비약할 억센 힘이 그 모습들에 비껴있었다.

《우리 지배인동지는 늘 이렇게 말한답니다. 심장을 바치기전에는 자기 일터, 자기 초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공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리희숙지배인은 18년전 로동자로 공장조업식에 참가했었다. 그로부터 4년후 지배인으로 임명되였다. 그날 그는 오래도록 공장구내를 돌고 또 돌았다. 당의 믿음에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고난의 시기 600㎡밖에 안되는 건물에서 8대의 설비로 첫걸음을 뗀 공장에서는 당시 수십명의 가정부인들이 하루에 수십㎏정도의 식료품을 가공하고있었다. 공장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지워져있었다.

리희숙지배인의 마음속에는 죽으나사나 당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맹세가 불타올랐다.

무엇보다먼저 생산을 활성화하여야 했다. 그 방도를 놓고 며칠밤을 모대기던 그의 머리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꿔주신 내 조국의 황금산들이였다. 우리 나라 산들에 얼마든지 있는 도토리를 리용하여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려는 그의 결심을 공장당조직에서 적극 지지하고 떠밀어주었다.

며칠후 변변한 차도 없었던 공장의 종업원들은 다른 기관의 차에 올라 법동으로 떠났다. 그후에는 평안북도의 산골군들로, 또 다음에는 자강도로…

산골마을들의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가랑잎에 가리워진 도토리도 놓치지 않으며 야외에서 수십일동안 천막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도토리는 퍼그나 되였다. 적은 원가를 들여 걷어들인 도토리를 보고 모두들 기뻐했다.

그러나 리희숙지배인의 생각은 달랐다.

생산에서도 반복은 죽음이다.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수는 없다. 같은 도토리로 만든 제품이라도 그 질이 담보된 신용있는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공장에서는 자체로 도면을 그리고 설비도 제작하고 생산건물도 일떠세우면서, 남들이 쓰고난 가스통으로 증기발생기를 만들어 전기보이라를 대용하면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어떻게 해서든 공장이 큰걸음을 내디딜수 있는 경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제품생산에 정성을 쏟았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구매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제서야 종업원들은 왜 지배인이 산골로 갈 결심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였다.

남의 힘을 빌어 흥해보려는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자강력에 과학기술을 합치면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다.

리희숙지배인은 또다시 사색을 거듭했다. 당시 공장에는 수동식이기는 하나 당과류와 에스키모, 빵생산공정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여기서 최단기간내에 최대의 실리를 낼수 있는 공정이 어느것이겠는가.

그는 구매자의 립장에서 생각해보았다. 당과류는 대체로 어린이들에게서, 에스키모는 여름한철에 구매력이 높다면 빵은 계절이나 나이구별이 없는 구매력있는 상품이다. 그러니 빵생산공정부터 개조해야 한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빵생산설비일식을 갖추어놓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일뿐, 손에 쥐여진것은 도토리로 만든 제품생산으로 축적한 얼마 안되는 자금이였다.

이때 리희숙지배인은 정말 남모르는 고민을 많이 했다.

활성화의 첫걸음을 떼여 축적된 귀중한 자금을 어떻게 리용하겠는가?

이것은 활성화의 성공과 공장의 래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공장으로 출근하는 종업원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들을 내가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속목소리도 들려왔다.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빵생산설비를 일식으로 들여다놓으면 모든 문제가 풀릴것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각났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을 자자구구 학습했다. 그리고 당정책에서 가야 할 길을 확신했다. 그것은 눈앞의 리익만을 위한 길도, 단번에 통을 잡겠다는 허황한 길도 아니였다.

목표는 세계와 겨룰수 있게, 방도는 개미가 뼈다귀를 갉아먹듯!

그의 결심은 상급기관의 지지를 받았다. 자기 실정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일을 전개하려는 그를 김명훈동무를 비롯한 상급기관 일군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리희숙지배인은 기사장 두성희동무(당시 기술준비원)와 함께 외국출장을 떠났다. 그 출장길에서 그들은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할 체험을 했다. 앞선 기술을 뽐내는 외국기술자들의 거만한 태도, 외국글자들이 씌여진 식료품들을 실은 짐차들이 우리 나라로 들어서던 광경…

그 모든것은 리희숙지배인의 심장의 피를 펄펄 끓게 하였다.

떠나온 조국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지난날들이 떠올랐다. 이 땅의 행복동이들이 다 그러하듯 그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우리 말, 우리 글을 배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동현장에 집단진출했던 그는 당의 은정으로 평양경공업대학(당시)에 입학하여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다. 그후 로동속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였다.

생각할수록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앞에, 당앞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는 출장을 떠날 때 가지고갔던 수첩에 이런 글을 써넣었다.

《조선로동당원의 량심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우리의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리라!》

새 빵로를 설치한 날 두성희동무를 빵작업반 반장으로 임명한 리희숙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두달이예요. 60일만에 설비원가를 뽑고 국가에 리득을 주어야 해요. 해낼수 있겠어요?》

60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자가 아니였다. 새로 설치한 빵로의 생산능력과 하루가 다르게 새 설비에 익숙될 작업반원들의 기능수준, 원료 및 전기, 물보장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온 수자였다.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는 지배인의 눈빛에서 참된 애국자의 량심을 읽은 두성희동무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어려있었다. 두성희동무는 구매자들의 요구수준부터 파악했다. 그에 맞게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과 규격을 과학적으로 정한 두성희동무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었다.

20여명의 로력으로 24시간 빵을 구워냈다.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제품규격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한편 공장직매점(당시)에서 판매조직을 짜고들었다. 드디여 60일이 흘렀다.

일 빵생산량 1t 돌파, 그로 인한 리득금 총전의 25배!

기적이였다. 공장에서는 활성화의 큰 보폭을 내짚을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리희숙지배인의 생각은 더욱 랭철해졌다. 자그마한 성과에 눈앞이 흐려져서는 안되였다. 세계와 경쟁하려면 아직도 먼길을 가야 했다.

그는 빵작업반에서 이룩한 성과를 깊이 분석하였다. 경험은 미래지향적인 첨단설비를 구입하며 그 원가를 최단기간에 보상해야 한다는것, 핵심설비부터 현대화하고 앞뒤공정을 따라세울 때 실리를 얻을수 있다는것, 새 제품개발, 제품의 질제고를 경영전략으로 틀어쥐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공장에서는 생산토대부터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빵작업반에 처음에는 회전빵로를, 다음에는 식빵면식기를, 2년후에는 보다 발전된 회전빵로와 반죽기를, 3년후에는 6단빵로를, 4년후에는 평판면식기를, 6년후에는 3단빵로를, 8년후에는 우유빵생산설비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빵작업반을 활성화하였다. 사탕작업반에도 처음에는 주형식사탕생산설비를, 얼마후에는 연신사탕생산설비를, 다음에는 목화사탕생산설비, 젤라틴단묵생산설비를, 또 그다음에는 쵸콜레트생산설비와 쵸콜레트당의설비를, 여기에 사탕자동정량포장기를 갖추어놓았다. 과자작업반과 각종 음료들과 꿀바싸생산공정을 갖춘 가공직장도 하나를 갖추고 그것을 둘, 넷으로 늘이면서 현대화했다.

그야말로 야금야금 축적하고 확대하여 공장에 500여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을 쾅쾅 생산해낼수 있는 종합적인 식료품생산토대를 구축하였다.

생산의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리희숙지배인은 종업원들을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준비시키는데 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배인으로 임명받기 전에 책임기사로 일하면서 경영관리가 째이지 못한 공간을 통해 국가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가를 깊이 체험했었다.

원단위소비기준과 제품규격의 제정과 준수, 원료구입과 보관과정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으며 공정감모로 보는 손해는 또 얼마인가.

기업관리는 물갈장사하듯!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 일부 준비되지 못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세도와의 투쟁, 주인답지 못한 일본새와의 투쟁이였다.

생산공정에서 있게 되는 원자재소모를 공정감모라고 한다. 반죽기나 반죽하는 사람의 손에 묻어 빵생산에 참가하지 못하는 반죽물, 기름이라면 용기들에 묻어나 생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것 등이다. 공정감모가 령에 가까울수록 원가가 저하되는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진지하게 하는것이다.

리희숙지배인이 처음 공정감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장에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을 깨우치며 공정감모를 놓고 총화를 심화시키게 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였다. 어떻게 손에 반죽물을 묻히지 않고 빵반죽을 하며 용기에 남는 기름을 다아 쓸겠는가.

에스키모작업반이 갓 조직되였을 때였다.

어느날 지배인방으로 들어서는 작업반장 함춘복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배인이 부른것으로 보아 얼마전에 있은 일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그 일이란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는 작업반원에게 닭알 10알을 내준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지배인의 입에서는 나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게 동무재산이예요? 동무의 잘못으로 국가재산에 손을 대도 된다는 생각이 작업반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였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보상하겠어요.》

그는 사탕작업반 로동자로 조동되였다. 그 조치는 함춘복동무의 자존심을 심히 건드려놓았다. 기초를 팔 때부터 공장에서 일해온 나를 이렇게까지 다룬단 말인가. 그는 사직서를 내며 지배인에게 말했다. 제 딸이 아프고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지배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러던 어느날 리희숙지배인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여전히 속이 풀리지 않아 뺑뺑해있는 그에게 지배인은 말하였다.

《한생을 송배전부문에서 일한 일군이 있었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있던 그는 림종의 시각에 전등을 켜놓은것을 보고 말했어요. 왜 불을 켜놓았는가고, 나라의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가끔 스스로 묻군 해요. 우리가 아버지세대들처럼 그렇듯 고지식하고 참되게 살고있는가고 말이예요. 우리모두가 그들처럼 일한다면 어버이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짐이 얼마나 많이 덜어지겠어요.》

리희숙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공장에 나오세요.》

이를 계기로 리희숙지배인은 제품들의 원단위소비기준과 규격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더욱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와 함께 지배인으로부터 마지막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하기 위해 머리를 썼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을 국가앞에 책임지고 보증하며 그 과정에 발휘되는 아름다운 마음과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그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로동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오늘은 과자작업반, 래일은 사탕작업반 현장에서 내가 로동자라면, 반장이라면 480분로동시간에 무엇을 하여야 하며 맡은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날수 있는 편향과 그 후과는 생산과 공장의 경영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직제별, 직종별로 일생산평가항목을 정하고 로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보충하면서 완성해나갔다.

그 과정에 진행한 협의회는 300여차, 세워진 평가기준과 규정세칙은 수백가지. 평가기준과 규정세칙을 세워놓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을 항심의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교양사업과 총화를 부단히 따라세워야 했다.

처음에 지배인의 마음을 리해한 종업원들은 많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나 말한다. 원칙을 떠난 사랑이 없다고. 지배인의 요구성에 따라서는 과정에 가정살림보다 공장살림, 나라살림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주인이 되였다고.

종업원들을 한마음한뜻으로 깨우치고 이끌어온 나날에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하루에도 몇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이 여기서는 배겨내기 힘드니 다른 공장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어제는 과자작업반에서, 오늘은 원료를 잘못 구입하여 반복수송한 운전사가 일작업평가가 공정치 못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그때마다 리희숙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서로 마음을 합쳐 일해보자요. 오늘일을 꼭 옛말처럼 외울 때가 있을거예요.》

공장에 세워진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데서 지배인도 례외가 아니였다. 그의 이신작칙은 대중에게 말없는 교양이 되였다.

그렇게 피가 나게 공장살림을 하느라고 언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는지, 언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였는지 모르게 맞고보낸 나날의 남모르는 헌신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체99(2010)년 12월, 선흥식료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모든 면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우리는 이 공장처럼 집을 하나 짓고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을 아주 잘하였다고 거듭거듭 평가해주시였다.

이슥하여 그이께서는 공장지배인이 조선인민의 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식료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눌러놓았다는데 잘하였다고 또다시 높은 평가의 표시를 주시였다.

그 순간 리희숙지배인은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슴속에 묵새기며 먼길을 왔던가.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리희숙지배인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관철에 일떠섰다.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자동화공학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생산공정의 무인화와 함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식료품의 생산을 더욱 늘이였다.

리희숙지배인(가운데)

생산공정관리체계, 전력관리체계, 제품의 생명주기고찰분석에 따르는 새 제품개발전략체계, 경영정보분석체계 등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정보화수준도 더욱 높이였다.

그즈음 리희숙지배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식료품과 제품의 생명주기에 따르는 새 제품의 개발 및 생산조직, 판매실현과 그 경제적효과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현행생산지휘로 바쁜 속에서도 그는 밤이면 참고도서들과 잡지들속에 파묻히군 했다. 그는 길을 가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식료품은 무엇인가, 우리 인민의 구미와 체질에 맞으면서도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놓고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명제품, 새 제품개발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는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장종업원들도 새 제품개발에로 적극 떠밀었다. 해마다 새 제품전시회를 조직하고 모범적인 종업원들을 적극 내세워주었다. 인민들에게 가닿게 될 제품의 포장도 완전무결한것으로 하기 위해 하나의 포장도안을 놓고도 수십차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그 나날 공장에서는 제품의 갱신주기를 3-6개월로 줄이고 100여건의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5종의 제품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고 100여가지 제품들이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다. 공장은 3중모범기술혁신단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선흥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의 질이 제일 높다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한다고, 선흥식료공장 일군들처럼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기풍이 있어야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과 높은 평가의 표시를 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에 고무된 공장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자체로 번 자금으로 많은 고급식료품들을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주민세대들에 공급되도록 하였고 인민군대를 원호하고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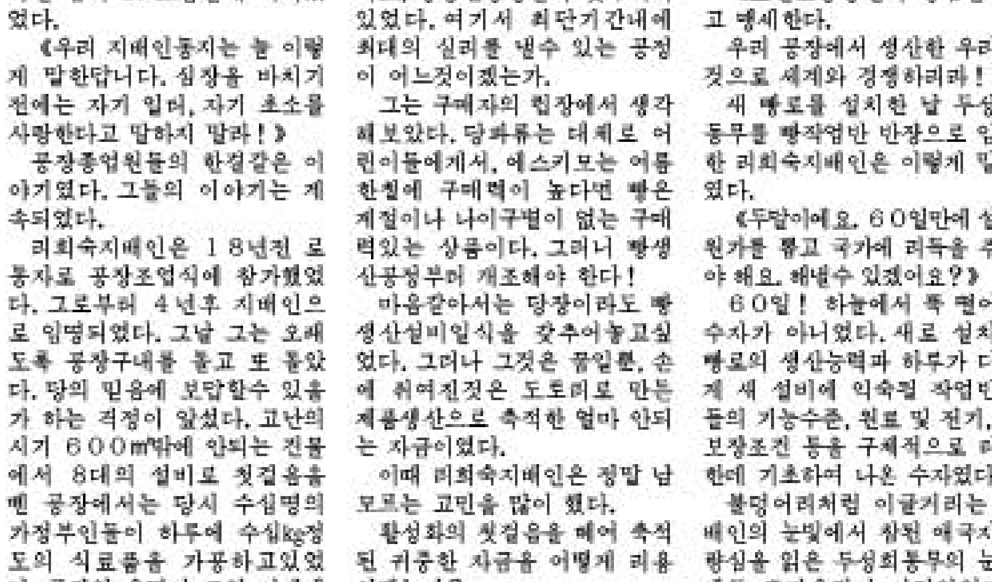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이들의 사업성과를 료해하시고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얼마전에는 리희숙지배인에게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종업원 한사람한사람의 마음속사연을 따뜻이 헤아리고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준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다심한 어머니처럼, 함춘복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실천속에서 투신력과 높은 실력을 갖추도록 품들여 키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엄한 스승처럼, 일감이 제기될 때에는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온몸을 땀으로 적시는 혁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인민군대 지휘관처럼 그 모습이 안겨오던 리희숙지배인을 정작 만나보니 소박하고 평범한 녀인이였다.

불처럼 뜨겁고 깨끗하며 일욕심많은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오늘의 시대가 바라는 일군은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고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정과 사생결단의 의지로 자기의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당의 참된 전사가 아니겠는가.

글 본사기자 림현숙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새로운 교육방법을 받아들이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간다.
-단천기술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 철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에서

철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은 크지 않은 단위이지만 지방의 원료원천으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해마다 수십종의 효능높은 고려약을 생산하고있는 공장으로 전국에 소문을 내고있다. 올해에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2년분생산과제를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공장사업을 보게 된 최경철지배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것은 단층생산건물이 널려있는데다 생산실적도 높지 못하고 후방사업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며칠후 지배인은 일군들과 마주앉아 연건평이 1 000㎡에 달하는 2층으로 된 종합청사를 일떠세우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영예군인공장이라고 하여 우에다 손을 내밀 생각만 하지 말고 제힘으로 일떠서서 자체로 살아나가는 공장, 나라에 리익을 주는 공장으로 만들자는 지배인의 이야기는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은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종합청사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는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세멘트와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덩지가 큰 종합청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1층에는 고려약생산설비들을 들여앉히고 2층에는 사무실들과 문화선전실을 새세기의 맛이 나게 꾸려놓았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농축기, 알약기 등 각종 설비들을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하여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았다. 올해에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농축기를 개조하여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효능높은 고려약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약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곳 일군들이 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지난 기간 공장에는 약나무림이 많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부족되는 약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나무림조성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갔다. 첫해에는 10정보, 다음해에는 8정보, 이런 식으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근기있게 이 사업을 내밀어 올해까지 70여정보의 약나무림을 조성해놓고 고려약생산에 필요한 약재를 자급자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배인은 약나무림을 조성하는 사업과 함께 양식장관리를 짜고들어 해마다 수백㎏의 진주조개를 생산하여 고려약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근천리지구의 야산에 사슴목장을 꾸려놓고 수십마리의 사슴을 길러 고려약생산에 필요한 약재들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도 튼튼히 마련해놓았다.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나날에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물론 올해에는 2년분생산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공장의 자랑찬 현실은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지방의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할 때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독자의 편지

# 친혈육의 정

제가 숙천청년과수농장 수리작업반과 인연을 맺은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이였습니다.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찾아할 결심을 안고 저는 농촌지원을 나갔다가 그들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수리작업반원들과의 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이라고 존대하며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이곳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친혈육의 정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습니다.

국가적명절들과 생일날은 물론 때없이 찾아와 성의껏 마련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안겨주며 군사복무시절처럼 기백있게 살라고 힘과 용기를 주군 하는 이들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심하게 앓아 자리에 누운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김현작업반장을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달려와 저의 머리맡에서 밤새워 간호를 해주면서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도록 고무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집울타리도 손질하고 앞마당의 포장도 번듯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주변에 많은 과일나무도 심어 주변의 풍치를 돋구어주었습니다. 평범한 영예군인인 저를 친혈육의 정으로 사심없이 도와주고있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심장깊이 느끼군 합니다.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내 나라, 인간사랑의 화원이 만발한 사회주의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저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숙천군 읍 316인민반
위명혁

#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으로

## 황해남도인민병원 의사 오만석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높은 의학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사경에 처한 환자도 살려낼수 있고 불치의 병도 고칠수 있습니다.》**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는 황해남도인민병원 의사 오만석동무가 내놓은 눈방울약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만석동무가 연구한 눈방울약은 과학자, 기술자, 사무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안정피로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정보화되고있는 오늘 오랜 시간 콤퓨터와 문서작업을 하는 사람들속에서 발생하고있는 안정피로는 안과림상에서 무시할수 없는 질병으로 되고있다.

이 눈방울약을 리용하면 이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으며 치료효과도 빨리 나타난다고 한다.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오만석동무는 안정피로눈약연구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어느날 스승의 집을 찾았던 오만석동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안정피로질병으로 고생을 하고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치료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그가 안타까와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마치도 의료일군인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치료효과가 높으면서도 눈자극작용이 전혀 없는 새로운 안정피로눈약을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헐치 않은 일이였다. 하지만 당이 바라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그는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며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한두해도 아니고 10여년세월 그는 눈약과 관련한 자료들을 얻기 위하여 수백리 밤길도 웃으며 걸었으며 하나의 자료를 놓고 며칠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고심어린 노력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탐구는 드디여 빛을 보게 되였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성과이기전에 한 보건일군이 지닌 깨끗한 량심과 보답의 마음이 낳은 결정체였다.

그 나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도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많은 의료일군들이 그에게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그는 오늘도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당당히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배심과 투지를 안고 환자치료와 연구에 자신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 사대굴종으로 초래될것은 랭대와 멸시뿐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현 당국과 미국, 일본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사실이 널리 여론화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대해 적극 떠들고있지만 일련의 현안문제들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있다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의 늙다리전쟁광패의 《완전과괴》폭언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협이 고조되는 속에 남조선당국은 전쟁을 막아달라고 상전에게 애걸복걸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듯 《대북선제공격》을 계속 운운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선동해 공해상으로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들이밀어 피뢰들을 당혹케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인도주의문제를 언급한데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압박》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것을 철회하라고 강박하고있다.

《자유무역협정》문제를 놓고서도 미국과 피뢰들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고있다. 피뢰들이 협정유지를 거듭 간청했지만 미국은 《협정폐기》까지 거들면서 재협상을 강요하였다. 상전의 우격다짐에 못이겨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선다는것을 결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할갑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고있다. 이미 피뢰들과 약속한 문제이므로 들려주기는 하겠지만 주구들이 제 처지도 모르고 그에 대해 득축하는 꼴이 맛갖지 않다는것이다.

한편 남조선과 일본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일본것들은 자국언론들을 통해 트럼프가 《대화를 구걸》하는 남조선집권자에 대해 《거지같다고 말했다.》, 인도주의문제와 관련하여 《화를 냈다.》는 보도들을 의도적으로 내보냈는가 하면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비난하게 하면서 피뢰들을 계속 자극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추모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제택된것과 관련해서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있다.

그야말로 외세에 아부굴종하다가 걷어찬것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구박과 멸시, 랭대와 천대만 받는 피뢰들의 비참한 처지를 뚜렷이 부각시켜주는 현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 일본파의 관계에서 계속 두들겨맞는 당국자들의 가긍한 신세를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사대와 굴종이 초래할것은 민족적수치와 망신, 파멸뿐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안고있다.

외세의 총질노릇을 하면서도 하대와 구박을 면할수 없는것이 식민지하수인인 남조선피뢰들의 가련한 운명이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은 남조선피뢰들의 생리이며 고질적인 악습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도 다를바 없다.

한때 남조선집권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평양에 먼저 가겠다, 미국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는 친미사대분자들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한갓 객기에 불과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게 되자 황급히 대양건너 미국으로 날아가 상전을 《은인》으로 뫼여올리고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동맹강화》를 비롯질하면서 자기의 친미사대근성과 대미추종의식을 검증받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얼마나 친미사대와 대미굴종에 피눈물었는가 하는것은 저들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준 초불민심을 짓밟고 미국상전의 요구대로 《싸드》밥시대추가배치를 전격적으로 강행한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이처럼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으며 친미사대행위에 열을 올렸지만 차례진것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피뢰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기껏서 죽는것》이라는 망발을 제치였고 나중에는 우리 공화국의 《완전과괴》와 《절멸》이라는 극단적인 폭언까지 내뱉으며 남조선을 핵참화속에 송두리채 몰아넣고서라도 침략적목적을 달성할 흉심을 드러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아무런 사전토의도 없이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조선동해 공해상에 들이민것도 피뢰들의 립장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상전의 오만한 처사이다.

《자유무역협정》문제,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그와 관련한 피뢰들의 청탁놀음을 시끄럽게 구는 녹지리창녀의 앙탈질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하수인, 총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을 등에 업고 그 무엇을 얻어보려던 남조선당국은 오히려 상전의 미움만 사고 랭대와 배척만 받았다. 미국과 같은 포악하고 날강도적인 상전을 섬기는 식민지주구들의 신세가 말리 될리 만무하다. 주대도 자존심도 없이 눈치놀음만 하는 피뢰당국의 친미굴종적인 자세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더욱 부추기고 남조선에 더 큰 재앙을 몰아오게 될것이다.

지금 일본이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면서 피뢰들을 따돌리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있는것도 미국과의 공모결탁에 따른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피뢰들을 불안감으로써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데서 남조선당국의 양보를 받아내고 재침의 길을 열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런 속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상전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이것저것 섬겨바쳤댔자 랭대와 손해, 굴욕과 망신밖에 당할것이 없다.

예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로골적인 무시와 하대, 멸시와 구박은 현 피뢰집권세력의 매국반역적인 외세의존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다.

사대와 굴종이 수치와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비단 지나온 력사의 교훈만이 아니다. 오늘의 남조선현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외세에 아부리 추종해도 랭대와 천대를 면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현 집권자가 《김대중과 로무현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립장을 표시하였고 더구나 초불투쟁에 의해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것만큼 미국, 일본의 압력의 도수를 높이어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족을 욱이게 하는 굴욕적인 대미, 대일추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초불민심의 요구에 부합되는 올바른 선택이다.

심 철 영

# 겁에 질린 늙다리불량배의 넉두리질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듯 한 수작을 련이어 늘어놓고있다. 얼마전 트럼프는 미군부우두머리들앞에서 그 무슨 《북풍전야의 고요》에 대해 떠들며 한바탕 희세를 부리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지난 기간의 조미대화가 《효과가 없었다.》고 《대화무용론》을 입에 올리면서 《단 한가지만은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망발을 또 게쳤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론난이 일어나는 속에 피뢰들은 《정고성발언》이라느니, 《군사적행동가능성을 내비친것》이라느니 하고 제편에서 으쓱거리며 상전을 등대고 더욱 잘망스럽게 놀아대고있다.

문제는 《북풍전야의 고요》와 《단 한가지 효과》에 대해 떠벌이며 잔뜩 기가 오른 트럼프가 자기의 수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묻는 질문에 《이제 곧 알게 될것》이라고 몽유병환자처럼 곱씹기만 하면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한것이다.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은 우리의 반미초강경공세에 전전긍긍하는 친하블랑패의 넉두리질에 불과하다.

미국을 수십년이나 상대해오면서 그 교활성과 허세를 꿰뚫어볼대로 본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트럼프가 작고 무기력한 나라들, 담력과 배짱이 없는 나라들에나 통하는 고삭은 수법으로 우리를 대하려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을것이다.

트럼프가 《북풍전야》따위의 위협적언사를 늘어놓은데는 그 누구를 놀래워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보려는 서푼짜리 속타산이 깔려있다. 당장 무슨 큰 변이라도 나는듯이 객기를 부려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단계목표달성을 위한 우리의 전략적조치를 가로막고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켜 현정세추이에 불안해하는 나라들을 대조선제재압박에로 더욱 내모는 동시에 심화되는 대내외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것이 트럼프의 흉심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트럼프의 망동은 우리의 금속한 핵무기고도화와 초강경대응립장으로 하여 막다른 궁지에 몰린 제놈자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아무런 타산도 없이 생각나는 말을 마음내키는대로 미구 내뱉아 소란만 일으키는 트럼프가 그런 정신병적인 광태로 누구를 놀래우려 한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서는 재미를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대결은 늙다리광패에게 절코 재미있는 놀음으로 되지 않을것이다.

리성을 잃은 전쟁광의 그런 무분별한 망동이 비난조소거리로 되는것은 당연하다.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서 무지하게 해럼비는 그 꼴이 얼마나 저속하고 꼴불견이였으면 측근들이 트럼프를 공공연히 《멍청이》로 비난하고 미의회가 백악관을 《성인탁아소》로 조소하며 지어 《단 한가지 효과》망발에 대해 《당신의 시임을 의미하는가.》고 비꼬았겠는가.

트럼프는 자기의 애매모호한 망발이 우리를 놀래울것이라고 타산했겠지만 사실 불안에 떠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사회이다.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이 식량과 비상용품들을 경쟁적으로 사들이며 목숨을 건지려고 부산을 피우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사회에 떠도는 공포와 불안감은 자국에 핵의 타격을 막아낼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없다는것이 명백해지면서 더욱 짙어가고있다.

트럼프는 자기의 경망스러운 언행이 그 누구를 억제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사회를 갈수록 불안에 떨게 하고 악마의 제국의 종말만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미국파의 힘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 핵무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이다. 정신병을 만난 미국상전의 지랄발광이 저들에게 어떤 재앙을 몰아오는지도 모르고 그 무슨 《군사적행동가능성》을 운운하며 뚫꺼부는 피뢰호전광들은 대미추종이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트럼프의 히스테리적인 광기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초강도제재압박》이 실패하는 경우 《군사적대응》을 선택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다 준비되여있다. 만일 미제가 감히 군사적도발의 길에 나선다면 미본토가 무자비한 핵보복타격으로 초토화되고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피뢰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허 영 민

# 동족대결에 미친 극악한 호전광

최근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피뢰국방부 장관 송영무역도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송영무가 《국회》에서 감히 《참수작전》망발을 내뱉고 미국의 전술핵무기재배치문제를 공공연히 들고나온 사실을 실례로 들면서 역도를 민중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물치키미로 묘사하였다.

신문은 송영무역도가 《민중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밑에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는 호전적망발만 늘어놓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대미초강경공세에 질겁하여 상전을 등에 업고 국도의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는 송영무역도를 남녘인민들이 어떻게 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참수작전》에 대해서까지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히스테리적망동을 부리였다.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무기재배치문제를 거들며 상전을 등에 업고 우리를 한사코 해칠 야망을 드러냈다. 그것은 임에 게거품을 물고 《화염과 분노》, 《완전과괴》라는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 미국의 늙다리광패 트럼프의 지랄발광과 결코 다를바 없는것이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송영무따위들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에 맞서보려고 객기를 부리고있는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벼룩이 바위를 걷어차는 격의 실로 우둔한짓이다.

우리의 련속적인 초강경조치에 미국도 마땅한 방책이 없어 쩔쩔매고있는 판에 상전의 발바닥이나 핥으며 잔명을 부지해가는 피뢰들이 무엇을 할줄이 허세를 부리는것은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친미사대의식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박 들어찬 송영무와 같은 극악한 매국역적들은 우리의 칫폐가는 소멸대상이다. 송영무역도는 대세의 흐름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함부로 도전해나서는 천하역적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역도는 자기의 분별없는 망동이 오히려 제 명줄을 끊어놓는 자살행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홍 철

# 남조선당국은 어리석은 개꿈에서 깨여나 현실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내부에서 현 집권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현 당국자가 《대통령》선거기간 《싸드》배치반대를 표방하고서도 당치않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싸드》 추가배치를 강행하고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순환배치확대를 다그치는 등 트럼프의 《대북군사적선택》이라는 전쟁망아간에 몸을 대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로 하여 초래된것은 남북관계와 정세악화, 국제사회로부터의 소외뿐이라고 규탄하고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다가 미궁에 빠진 남조선당국자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신베를린구상》과 《한반도운전자론》,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 등이 언젠가는 효력을 발생할것이라고 력설해대고있는데 대해 도대체 그 밤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야유하고있다.

전직관료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일반주민들까지 남조선당국자의 《대북정책》에 대해 리명박, 박근혜가 떠들어댄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와 뭐가 다른가, 희망하기 그지없다고 지탄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남북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똑똑한 주견도 대세판단감각도 없이 헤덤벼치는 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스러웠으면 민심이 이처럼 분노하겠는가.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각계층의 거센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한한 《대북정책》을 고집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 북남관계에 어떤 파국적인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이 내든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이 전혀 실현불가능한 극히 모순적이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며 보수세당이 추구하여온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알아들을만큼 충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것을 한사코 외면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것으로써 북남관계차단의 빗장을 더 깊숙이 가로질렀다.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정화를 바라는 초불민심과 온 겨레의 요구는 안중에 없이 오직 저들의 체면과 집권유지에만 몰두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눈앞에 펼쳐지고있는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신주모시듯 구구 추종해온 미국의 신세가 파연 어떻게 되였는가.

그 무슨 《화염과 분노》니, 《완전과괴》니, 《북풍전고요》니 하는 폭언을 쏴쳐댄 트럼프는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미치광이, 《과대할줄만 아는 어린애》로 조롱당하고 놈이 거치하고있는 백악관은 《정신병동》, 《성인탁아소》라는 비난딱지가 말려 내외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볼락한 주인에 가련한 머슴이라고 이쯤 되였으면 미국상전도 저들의 운명을 전적줄수 없다는것은 알아차려야 할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 《한미동맹》이라는 마약기운에 위한체 의연히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의 수렁에서 헤매고있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아직도 북을 제재압박하여 대화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겠다는 개꿈을 무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절국 동족을 적으로 대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해두건대 대미추종과 북남관계개선, 제재압박과 대화는 절대로 병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오늘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톨이신세가 된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황당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는 속에 보수패당이 숨통을 잃고 민주개혁세력을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것이야말로 초불투쟁의 성과를 말아먹은 용납 못할 반역죄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며 초불민심이 등을 돌려대면 남조선당국의 운명도 끝장이라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분수없이 놀아대다가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끔찍한 대참화만을 불러오게 될뿐이다.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사대매국적인 대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길, 자주통일의 길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어리석은 개꿈에서 깨여나 현실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6(2017)년 10월 13일
평 양

# 량심수석방은 초불민심의 요구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보수패당의 악랄한 모해와 탄압으로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고있는 량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이 더욱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석방추진위원회, 서울민권변호사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여러 진보적인사들은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정기집회를 또다시 가지였다. 이날 1 1 4 0번째로 열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당국의 친미굴종정책과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 견결히 싸운 량심수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악명높은 《보안법》을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량심수들은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근로대중의 인권을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여온 인사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은 《친북좌파》, 《종북세력》 등의 얼토당토않은 딱지들을 붙여 갖은 박해와 고통을 들씌우다 못해 철창속에 가두는 반인륜적망동을 저질렀다.

남조선에서 과쓰독재통치와 진보세력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던 피뢰보수패당은 초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초불민심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량심수들은 철창속에서 나오지 못하고있다.

초불투쟁의 력으로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은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보수《정권》만대투쟁을 앞장에서 선도해온 량심수들의 석방문제를 외면하는것이야말로 명백한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 당국의 이런 온당치 못한 처사는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대전교도소앞에서는 량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재까지 단 한명의 량심수도 석방하지 않았다고 까발리였다. 그들은 《지금 량심수들이 특급범죄자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갇혀있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량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량심수석방투쟁은 결코 몇몇 사람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주화에 대한 초불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어전히 독재통치에 매달리고있다. 헌실은 남조선당국이 요란하게 광고하는 적폐청산이 한갓 민심을 기만우롱하는 오그랑수에 불과하며 이런자들이 인민들에게 가져다줄것이란 과거 과쓰독재시대의 불행과 재난뿐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민심을 등지고 반역을 일삼는 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것은 박근혜역도의 가련한 운명이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초불민심을 거역하는 반역적망동을 걷어치우고 량심수석방에 대한 각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사기자

## 늘어나는 총기류사고

8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각종 총기류에 의한 사고가 계속되여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기류에 의한 사고는 밝혀진것만도 70여건에 달하였는데 특히 지난해에 그 건수가 많이 증대되였다.

이로 하여 80여명이 죽거나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늘어나는 총기류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는 떠받쳐진 미국의 총기문화에 찌들대로 찌든 남조선사회의 피할수 없는 재앙이다.

【조선중앙통신】

# 침략자, 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를 파멸의 함정에 몰아넣은 대중적인 초불항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1년이 되여오는것과 관련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4선언발표 10돐기념 정화통일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전쟁망발을 신랄히 단죄규탄하면서 《대북제재》반대와 북남관계개선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민주로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도 현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 동족대결책동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들을 벌리였다. 단체성원들은 현 집권자가 동족압살책동에 매달려온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추진하고있는 《대북제재》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이 초불항쟁이 개시된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반미, 반《정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등장하게 된것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쓸어버린 초불항쟁의 결과였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남조선집권자는 초불민심을 배반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박근혜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을 되풀이하고있다. 피뢰보수정권시기와 다를바없는 친미굴종자세, 미국의 전쟁피불 《싸드》의 강압적인 배치소동,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대한 적극적인 카담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이렇듯 초불민심을 등지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고있으니 인민들이 어떻게 참을수 있겠는가.

얼마전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침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집권세력의 망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북완전과괴》라는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고 그 이후에도 《모든 전쟁준비가 완료》되였다고 푸언하는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공갈을 그치지 않고있다고 격분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트럼프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고 단죄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각계각층이 반미반전투쟁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적극 련계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는 《정의와 통일을 어는 사람들》, 민주로총,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소성리《싸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전쟁위험을 해소하는데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초불항쟁으로 박근혜역적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한 그 기세로 이 땅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호전적망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 정 철

#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규탄

# 남조선인민대네트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민주당이 구성한 평화원정단이 2일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반전평화시위를 벌리였다.

그들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당장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미군은 당장 남조선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보다 앞서 민중민주당은 평화원정단을 구성하고 9월 27일부터 백악관앞에서 긴급단식릉성투쟁에 들입하였다.

참가자들은 《무조건 전쟁반대! 즉각 평화협상!》, 《싸드철거! 평화협상!》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트럼프의 미치광이망언을 강력히 성토하였다.

9월 28일 원정단은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저들의 편이 아니라고 푸언하고있지만 군부당국이 핵전략폭격기 투입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선택을 떠들고 백악관내에서도 전쟁가능성을 무시할수 없다는 망발이 터져나오고있다고 까밝혔다.

트럼프가 전대미문의 《완전과괴》망발을 하며 북을 로골적으로 위협하였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트럼프와 백악관이 조선반도정세를 6.25전쟁전야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근원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트럼프가 자기의 망발에 대해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미군을 《싸드》와 함께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철회하며 당장 북과 평화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였다.

통성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싸드 즉각철거》,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환수》 등의 웨침이 연방 터져나왔다.

이들의 투쟁을 지켜보면 많은 미국시민들이 《평화협상은 당연한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평화원정단 미국에서 반전투쟁 전개

# 비정규직이 전면철폐될 때까지 싸울것을 선언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통양세멘트업주측의 부당한 조치로 해고된 후 여러해동안 완강한 투쟁을 벌려 정규직을 쟁취한 로동자들이 9월 28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집회를 가지고 비정규직이 전면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5년 2월 통양세멘트업주측은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취소하며 많은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하는 폭거를 강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해고로동자들은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3월부터 남조선강원도 삼척에 있는 본사앞에서 파업투쟁에 진입하였다.

그해 겨울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에서 《우리는 더이상 동양의 노예가 아니다.》고 해치며 통성투쟁을 벌리는 등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렸다.

계속되는 로동자들의 투쟁에 못이겨 업주측은 올해 7월 교섭마당에 끌려나와 끝내 그들의 정규직을 인정할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집회발언자들은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않는 철벽같던 비정규직문제에 파렬구를 냈다고 말하였다.

업주들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고 현대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이번의 승리는 비정규직철폐투쟁의 한매기를 장식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번의 성과를 디딤돌로 하여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아직도 많은 로동자들이 통성장에서 싸우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비정규직의 전면철폐를 위해 지역과 로동현장에서 잘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71163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성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